

1. 다문화 사회로

분명한 것은, 오늘날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 속에 살고 있음이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제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반드시 도모되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문화 교류가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문화 간 대립, 갈등, 혼란 및 그로 인한 구성원들의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1950년대 이후 많은 '경제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이후 동.서독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겪으며 우리보다 먼저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래서 늦게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보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 많이 연습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여전히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을 방법'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다.

1) 근세 이후 독일로의 외국인 이주(대규모) 역사

- 17세기 중엽: 프리드리히 1세(후에 프로이센 왕이 됨)에 의한 프랑스 신교도였던 위그노 파의 브란덴부르크 지역 이주
- 1870년대: 석탄과 철광석 채굴을 목적으로 루르 지방으로 폴란드인 이주
- 1880년대: 아프리카지역의 식민지 개척에 따른 이주
- 1945년 이후: 동유럽에서의 이주
- 1955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주
- 1960년대 후반 이후: 동구권 반체제 인사들의 망명
- 1970년대 후반 이후: 아랍권 반체제 지식인들의 망명

2) 1955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독일 이주 현황



2.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미국의 경제학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The European Dream』

아메리칸 드림: 미국 사회에 만연한 '타 문화'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근대 국가적 주권 개념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온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마저 흔들리게 되고 말았다.

유러피언 드림: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모여 사는 유럽 대륙, 오랜 시간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평화롭게 '함께 살기'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 온 유럽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함께 어울리려는 기본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진보와 발전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된 우리들. 오늘날 우리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일화를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각자의 개성과 삶이 존중 받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공존하는 유럽의 정신이 아마로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① 페기다 PEGIDA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서구사회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인 유럽인들)

- 2014년 10월 11일 Facebook 그룹으로 시작

- 2014년 10월 20일 드레스덴 집회를 시작으로 독일과 유럽의 이슬람화, 이민정책,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 2015년 1월 21일: 페기다 대표 루츠 바흐만(Lutz Bachmann) 히틀러 흉내 낸 셀카 사진 논란으로 대표적 사퇴

- 원래 킨더 초콜릿은 평범한 독일 어린이(백인 어린이)가 포장지 모델이었는데 이것을 흑인과 아랍계로 바꿨다며 비난: 흑인 어린이는 제롬 보아텡, 아랍 어린이는 일카이 권도 간의 어린 시절 사진

- 페기다 설립자인 루츠 바흐만은 지난 5월 징역형은 면했으나, 난민들을 '인간쓰레기'(scum)라고 지칭한 죄로 9600유로(약 12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 반 페기다 시위도 있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개방정책을 가장 앞장서 비판한 기독교사회당(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교민주당의 보수 자매정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당은 그 이전 다른 전문기관들의 조사에선 45~49%를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3. 주도문화 중심의 흡수 동화인가? 다문화 공존의 통합인가?

독일: 2010년 10월에, 기사연 CSU 의장 호르스트 제호퍼에 이어 연방 수상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이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후원 못지않게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터키: 터키 수상 에르도간은 2011년 초 뒤셀도르프 연설에서 "이슬람 공포증은 반유대주의처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다.[...]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동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누구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다름이 풍요로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상호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다문화 사회통합 모델: 호주의 사회학자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의 <이주의 시대>(1994)

1)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 자국 내로 들어온 이주자들이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들을 제한하여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사회통합 모델
- 자국민과 자국 내 거주 외국인의 차별 허용
- 자국 내로 유입된 외국인은 3D 분야 고용 등 경제 분야에서만 수용할 뿐, 시민권이나 선거권 등을 부여하거나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지는 않음
- 자국민의 정체성과 문화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는데 주력

2) 동화 모델(assimilation model)

-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초기 이민정책으로 채택한 모델
- 소수의 이주자가 다수인 자국민의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
- 이주자는 자신이 새롭게 선택한 국가의 문화 수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자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 등의 포기를 강요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도 않음
- 이주자가 출신국의 언어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자국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주자들이 자국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허용

3)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

- 차별적 배제모델과 동화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모델

- 소수자의 문화를 포함한 구성원 개인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자 함
- 자국민과 이주자들 간의 소통과 이해 및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용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앞서 개인과 그들 고유의 문화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구성원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함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보다, 자신이 원하는 문화 소에만 머무르며 타 문화와의 교류 및 소통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즉 여러 문화가 단지 병존할 뿐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 내포

4.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 국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수용한 초청노동자 통합 정책: 1. 고용계약 만료 후 본국으로 귀환 -> 2.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사회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귀환 대상 -> 3.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언어 교육 등 일시적인 통합정책 실시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통합 정책: 1. 통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여겼던 구 동독 출신 독일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심화 -> 2. 구 동독지역 극우파들이 ‘단일민족과 문화’를 외치기 시작 -> 3. 독일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비 유럽지역 출신 터키 계 이주민과 독일인들과의 물리적 충돌 시작

- 오늘날의 독일: 동화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병용하는 정책으로 전환: 결국 문화에 대한 상호 간 올바른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주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모되어야 할 문제일 수 밖에 없음을 인식

★ 참고문헌

제러미 리프킨(이원기 역):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 민음사, 2005[2004]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03[1994]

김진숙: 독일영화 속 다문화 사회통합 모델 - 영화 <천국의 가장자리>와 <나의 가족 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실린 곳: 人文科學研究(33), 2015, 164-192쪽

장봉익: 유럽 다문화 주의 연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실린 곳: 한독사회과학논총 22(4), 2012, 131-158쪽